

# 수익성 보다 공공성...“공공기관 ‘착한 부채’ 문제 없다”

### 민주당 김주영 의원 공공노동 포럼...부채 원인 정확한 구분 필요 기재부, 한전 포함 재무위험기관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 지시 최근 10년간 부채 늘었지만 부채비율은 222%→151%로 개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고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공격 가치 실현을 위한 ‘착한 부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5일 개최한 9차 공공노동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라는 주제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들의 부채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

관 부채는 2020년 54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7.7%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151%로 전년(151.9%)보다 소폭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정상태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부채총액을 자본총계(순자산)로 나눠 산출한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공공기관 부채는 496조1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비율은 220.0%에서 151.0%로 개선되고 있다.  
이 위원은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난 것보다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무

적으로는 건전성이 높아진 것을 말한다. 국내 기업 평균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도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전체 재무현황(부채, 자본)에서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량에 이른다. 한전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고 전기요금에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동결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재무현황이 악화돼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전과 함께 무리한 해외자원 외교사업 여파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자원기업 4곳(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은 지난 5년 동안 145.5%(2017년)→137.6%(2018년)→134.4%(2019년)→128.4%(2020년)→117.8%(2021년) 등으로 줄게 된다.  
이 위원은 “한전과 발전기업 6개사의 경우 연료비 단가 상승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 없었음에도 부채비율만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

정하는 것은 선부르다”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된 14개 공기업의 사업수익성 악화 또는 재무구조 취약 이유를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공공성 실현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이 원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부채비율은 223.2%로, 전년(187.5%)에 비해 35.8%포인트 증가했다.  
이 위원은 한전의 재무안전성 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전의 내부 비용 통제를 가능할 수 있는 판매관 리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2020년 4.6%→ 지난해 4.7%), 기업활동성을 진단하는 총자산회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0.28%→0.29%)되고 있으며 자기자본회전율도 상승하는 추세(0.86%→0.93%)이다.  
이 위원은 “한전 부채는 연료비 단가 상승에 대응해 전기 요금을 적시에 충분히 인상시키 못한 것에 기인한다”며 “실제 한전은 매출원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재무 지표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

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기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해 공공성을 지키는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감안하면 두 가지 정체성 중 ‘공공성’이라는 정체성이 ‘수익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더 중요하기에 공공성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수익성 또한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한전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494.9%로 공공기관 1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대신 떠안은 부채라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됐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농지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농지관리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관리하느라 부채 비율이 높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전력은 5일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정승일 사장 주재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열고 전력수급 비상단계별 추가 예비력 자원을 점검했다. 한전은 오는 9월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한전 제공>

##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 송배전 취약설비 집중 점검

한국전력은 5일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설비 고장·수요 급증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 설비 고장과 정전에 대비해 송배전 취약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해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산업단지 등 고장 발생 때 파급 영향이 큰

주요 설비를 우선 점검하고 광역 정전에 대비해 주요 계통의 전력 설비를 살폈다. 또 송전탑 등 침수 및 산사태 위험 설비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아울러 배전설비 194만개에 대한 진단 및 점검과 함께 과부하 변압기 약 6만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지중 저압 설비 20만 개 등도 점검했다.  
한전은 또 아파트 2만6594개 단지에 대한 정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체제도 갖췄다.  
한전은 오는 9월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에 본사와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나주경찰서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협약

한전KDN은 지난 4일 나주경찰서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정성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김선우 서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열고 교통안전 캠페인, 사회적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혁신도시 기관들, 중요 기록물 주요 과제 발굴



14개 공공기관·공기업 관계자들이 5일 사학연금 나주 본사에서 ‘광주·전남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광주·전남 14개 공공기관이 지역 기록관리 문화 확산에 협력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나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기록관리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록관리 협의체에는 전남개발공사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어촌공사, 사학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주요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투명한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공식 채널이 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기록물의 투명하고 안전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포럼을 열어 지역 기록관리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출범식에서 협의체는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지침을 의결하는 한편 향후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 비결과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본보기 삼기로 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114년의 역사가 담긴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공동 과제를 발굴해 기록관리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